— Sat-73 —

자연 퇴행되어 장기생존을 보인 소세포 폐암 1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안진영, 이연선, 권선중, 박희선, 정성수, 김주옥, 김선영

소세포 폐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아주 예후가 불량하여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전세계적으로 소세포 폐암의 자연 관해가 드물게 보고되고는 있으나 재발 없이 장기 생존을 유지한 보고는 없다. 저자들은 조직학적으로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아무 치료 없이 지내던 환자로 완전 자연퇴행되어 재발이 없이 5년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는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1994년 4월 70세 여자 환자가 기침과 호흡곤란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 우상엽에 종괴가 발견되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받았다. 내시경소견상 말단 기관과 우측 주기관지, 우상엽 입구에 점막하 침윤이 발견되었고 생검을 시행하여 조직소견상 전형적인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권고 받았으나 거부하고 추적이 안된 상태에서 지내던 중 2001년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다시 본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전 호흡기적 자문을 위해 내과에 의뢰되었다.
추적 흉부 사진상 이전의 종괴가 사라졌고 환자는 1997년 이후부터 증상이 서서히 좋아져 별다른 호흡기적 문제없이 지내왔다고 하였다. 그사이 다른 치료나 민간요법은 받지 않았다. 재검사를 권고하였으나 당시에는 응하지 않아서 2003년 3월에야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추적하였고 추적 기관지내시경은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했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일부 종괴의 흔적만 우상엽에 남아 있고 자연 퇴행된 상태이고 2003년 8월 현재 까지 8년이상 생존해 있다.

— Sat-74 —

동종 폐이식 후 발생한 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ease (PTLD) 2 례

장윤수[1], 김영[1], 김형중[1], 안철민[1], 이두연[2], 박찬일[3], 조상호[3], 김성규[1], 백효채[2]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1], 흉부 외과학 교실[2], 병리학 교실[3]

폐이식 후 약 5~12%의 빈도로 발생하는 PTLD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면역 억제 요법으로 인한 Epstein-Barr Virus (EBV)의 증식, 억제 T-림프구의 기능 상실, 그리고 B-림프구의 s의 증식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증례 1. 42세 남환이 20 여 년간 겪어온 Eisenmenger syndrome으로 6 개월 전 심폐이식 시행하였으며 cyclosporine A, Azathioprine 및 steroid로 면역 억제 요법 시행하며 거부 반응 없이 지내시던 중 3일간의 발열 및 오한으로 내원하였다. 흉부 X-선 검사상의 다발성 종괴가 전폐영역에서 관찰되며 혈액 검사상 EBV 재활성화 소견 보여 폐조직 검사 시행 단형 B-림프구 증식 소견 보여 PTLD 진단하에 보전적 치료 중 상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증례 2. 36세 여환은 중증 폐기종으로 치료 중 2년전 좌측 폐이식 시행 받았으며 면역 억제 요법 및 정기 추적 검사 도중 발견된 다발성 폐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 보조 조직 검사상 단형 B-림파구 증식성 PTLD 진단되어 2회 항암 화학 요법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폐부종 및 기흉으로 사망하였다.

PTLD는 폐이식 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중증의 질환으로 면역 억제 요법 및 EBV의 재활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